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8.12(금) ~ 2022.8.18(목)

제공일시 2022 08 2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8.12(금) ~ 2022.8.18(목)

제공일시 2022 08 2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EU, 美 자국산 전기차 우선 지원법에 “WTO 위반”/ 美 전기차 인센티브 규제법에 EU 한국 강력 반발... 법안 내용 뭐길래?

- 미국이 자국산 배터리 탑재 등 조건이 달린 새 전기자동차 보조금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유럽연합(EU)이 우려를 표명했음
- 미리엄 가르시아 페러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해당 조치는 해외 자동차 회사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도 상충함”라고 말했음
- 한국에서도 현대차, LG엔솔 등 관련기업의 우려가 나오면서 예상외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배터리부품을 ‘북미지역’ 조립 혹은 제조 비율을 정한 규정 때문임
- 이에 따라 현대차, LG엔솔, 삼성SDI, SK 등 관련기업과 대책회의를 했고,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도 전기차 세제혜택에 대한 의견서를 10일 하원에 전달했음

(연합뉴스, 2022.08.12) 정빛나 기자
(글로벌경제신문, 2022.08.12) 이성구 전문위원

2. 美, 첨단 반도체 기술 수출통제... 中 ‘반도체 굴기’ 막겠다

- 미국이 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했음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는 새로운 장애물을 세우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음
- 15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12일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이유로 새로운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 이번에 제한된 기술 4가지 중 3가지가 반도체 관련 기술인데, ‘전자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 수출이 금지되고 ‘산화갈륨’과 ‘다이아몬드’ 소재도 수출 제한 대상임
- SCMP는 중국 반도체 업계는 미국 케이던스디자인 시스템, 시놉시스, 멘토그래픽스 등 기업의 EDA 의존도가 높으며, 이번 새로운 수출 규제가 중국 반도체 시장 관계자에게 충격을 줬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2022.08.16) 강대경 기자

3. 블랙록, 훔아카이사에너지사 7억달러에 인수...배터리 저장 프로젝트 구축

- 세계 최대 자산 운용 회사 블랙록이 호주의 아카이사 에너지(Akaysha Energy)를 7억달러에 인수했음
- 17일(현지시간) CNBC, ESG투데이 등에 따르면, 블랙록 대체자산(BlackRock Real Assets)이 관리하는 펀드는 최근 아카이사 에너지를 인수했는데, 이 회사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 이 회사는 특히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지(BESS)를 전문으로 하여 향후 아태시장에서 ESS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녹색수소 시장과 다른 재생에너지 기회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음
- 이전 정부와 달리 호주의 새 정부는 국가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정하는 등 여건도 좋아졌음 이번인수는 블랙록 대체자산팀의 한 파트너 블랙록 기후인프라부문이 아태지역 최초로 진행한 배터리 스토리지 투자임

(ESGToday, 2022.08.17) Emanuela Kerencheva 기자

1. 독일, 결국 탈원전 포기... 마지막 남은 원전 3기 가동연장-WSJ

-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감축으로 에너지를 겪는 독일이 결국 ‘탈(脫)원전’ 정책을 포기해 주목 받고 있음
-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독일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 올 연말 가동 종료 예정이던 남은 원전 3기의 수명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함
- 이 조치는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해 올겨울 비축분을 채우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며 당국자들은 원전 수명을 연장해도 그 기한은 '단 몇 달'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음

(뉴스1, 2022.08.17) 최서윤 기자

2. 경기침체 우려에 美 빅테크 기업들 직원 감축... 고용 속도조절

- 미국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기업들이 잇따라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음
- 애플은 지난주 채용 담당자 100명을 해고. MS는 지난달 각 사업 부문에 걸쳐 전체 직원의 1% 미만을 감축했고 테슬라는 직원 10% 감축을 공언한 상태임
- 사실상 미국 고용 시장을 책임졌던 이들 기업은 기존 인력을 감축하고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면서, 경기 침체에 대비해 방어적인 자세로 전환하는 모습이 보임

(연합뉴스, 2022.08.17) 김태종 특파원

3. BMW,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지속 가능한 패키징 개선과 배출량 삭감을 위한 이니셔티브 시작

- BMW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공급망의 탄소 배출량 20% 삭감을 목표로, 재활용 및 재사용 자재 사용을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유럽의 BMW공장들은 재활용소재를 더 많이 사용하며, 물류용 재활용 포장 비율을 20%에서 35%로 두 배 가까이 늘릴 예정임
- BMW는 이번 이니셔티브를 포장용 탄소 계산기를 통해 개별 조치의 영향을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힘

(ESGToday, 2022.08.12) Emanuela Kerencheva 기자

4. 삼성SDI, ‘美-유럽’ R&D 연구소 설립 / SK이노, 미 투자자회사 설립 / LG화학 미 일리노이에 바이오 플라스틱 공장 건설

- 국내 기업들의 해외 연구소와 자회사, 공장 건설 소식이 잇따라 보도되었음 삼성SDI가 미국 보스턴에 ‘SDI R&D America(SDIRA)’를 설립했음
- 삼성SDI는 지난달 1일 독일 뮌헨에 ‘SDI R&D Europe(SDIRE)’을 설립했고, 2023년에는 중국 R&D 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임 해외지역별로 특화된 배터리 신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초격차 기술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함임
- SK이노베이션은 7700만달러(1007억원)를 투자, 미국에 투자자회사인 SK이노아메리카를 설립했음 친환경기업 지분투자, 경영권 인수 등 그린비즈니스 강화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고, 올해는 펄그럼바이오에너지, 아모지 등에 투자해왔음
- 한편, LG화학은 글로벌 곡물 가공 기업인 미국 ‘ADM(아처 대니얼스 미들랜드)’과 함께 일리노이에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공장을 세우기로 했음

(뉴데일리, 2022.08.16) 이현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2.08.16) 김영권 기자
 (뉴스퀘스트, 2022.08.16) 김보민 기자

1. 탄소중립 촉진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 착수, 평균보다 배출 적어야 유리

- 환경부는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의 첫 회의를 16일 개최했음
- 관계부처, 대상 업종별 대표기업 및 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이 협의체는 제도개선, 유상할당, 배출효율기준할당 등 3개 분과로 운영된 제도개선 분과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확대방안을 논의함
- 이에 더해 유상할당 분과와 배출효율기준할당 분과는 중장기적인 배출권 할당방식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특히 온실가스 배출이 동종업체에 비해 얼마나 적은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배출 효율기준 할당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밝힘
- 또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해 탄소차액계약제도 등 신기술 도입을 위한 지원을 늘리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 도입 등 국제 사회의 탄소 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소개함

(매일경제, 2022.08.15) 송민근 기자

(노컷뉴스, 2022.08.15) 장관순 기자

2. RE100 생존 문제인데 “한국은 공급량 태부족”

- RE100 가입 기업은 지난달 기준 376곳으로 늘었으며, 한국 기업은 2020년 6곳에서 2년 만에 21곳으로 증가하여 미국(96곳) 일본(72곳) 영국(48곳)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아졌음
- 코트라가 글로벌 제조기업 61곳의 RE100 추진 내용을 분석한 결과 30곳은 기존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규제성 조치를 마련했으며, BMW그룹은 삼성SDI에 ‘젠5’ 배터리를 제조할 때 친환경 전력만 사용하도록 계약상 의무를 부여했고, TSMC는 협력업체에 ‘2030년까지 에너지 절약 30% 달성’ 등의 환경 관련 의무사항을 적용함
- 삼성전자의 국내의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율은 16.3%지만 한국으로만 한정하면 2.7%(추정치)로 떨어지듯, 국내선 재생에너지 가격이 비싸 쓸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함
- 해외 글로벌 기업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장기계약을 맺고 전력을 공급받는 PPA 방식으로 안정적인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데, 국내도 점차 직접 PPA방식이 늘고 있음

(국민일보, 2022.08.17) 황인호 기자

(국민일보, 2022.08.17) 황인호 기자

3. 尹 정부 원전 수출 컨트롤타워 본격 가동… 관계부처·금융·기업 총집결

-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민관 합동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이하 ‘원전수출위’)가 정식 출범했음
- 원전수출위는 우리나라 원전 수출 생태계 복원과 해외 원전 수주 지원을 주도할 예정이며,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원전수출위 위원장을 맡고 산업은행장과 수출입은행장도 원전수출위 위원으로 참여함
- 원전수출위는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올해 1306억원 규모의 긴급 일감을 포함해 총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원전 협력업체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힘
- 또, 원전 수주 국가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맞춤형 수주 활동을 펼치기 위해, 주요 의제별 전담 기관이 중심이 돼 수출 전략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임
- 또 원전 산업과 금융·수출 당국 간 취약해진 연결고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전기업지원센터’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조선비즈, 2022.08.18) 전준범 기자

1. 잘 나가던 ‘식물성 고기’… 값 비싸지고 인기까지 시들 ‘성장 0%’

- 3년전 미국 나스닥에 화려하게 데뷔한 식물성 대체육브랜드 ‘비온드미트’가 직원 4% 감축계획을 밝혔음
- 2분기 실적에서 9710만달러 순손실을 기록, 올해 매출전망치도 4억7000만~5억2000만달러로 대폭 낮춰서 현재 주가는 고점 대비 80% 이상 빠진 상태임
- 비온드미트는 2021년 성장률이 0% 정체됐음 여러 외식 업체와 제휴를 하고 시범 판매에 나섰지만 이 역시 지지부진하고, 지난달 맥도날드는 비온드미트와 함께 개발한 식물성 버거 ‘맥플랜트’의 시범 판매를 별다른 추가 계획 없이 종료했음
- 이에 더해 물가급등도 문제임 식물성대체육이 주류시장으로 진입하려면 맛과 가격이 관건이 필요하다는 분석임

(조선일보, 2022.08.18) 성유진 기자

2. “3년 뒤 240조”… 화학 기업들은 왜 수소에 열광할까

-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화학업계가 수소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기술 경쟁력 확보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음
- 이들은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해 연구개발에 나서거나, 해외 수소 기업에 투자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사업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음
- 코트라에 전 세계 수소 생산 시장 규모를 2020년 기준 약 1296억달러(약 155조원)에서 연평균 9.2%씩 성장했으며, 오는 2025년 약 2014억달러(약 2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아시아타임즈, 2022.08.15) 전소연 기자

3. 덜 쓰고, 수거하고, 다시 쓰고… 삼성·LG ‘플라스틱과의 전쟁’

-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한 제품들을 잇달아 출시해 주목받고 있음
- 직접 제품을 수거해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고, 포장재에 쓰이던 플라스틱을 다른 소재로 대체 하기도 함
- 플라스틱에 대한 국제 규범이 늘면서 업체들이 경영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 플라스틱 줄이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됨

(경향신문, 2022.08.16) 이재덕 기자

4. ‘배터리 강자’ LG에너지솔루션, ESG 환경 부문 1위

- ‘환경ESG’가 실시한 ‘2022 ESG 브랜드 조사’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환경 부문 1위(448점)를 차지 했음 2위는 (주)LG가 차지했으며, SK에코플랜트가 3위, SK에너지가 4위를 차지했음
- 그룹사별로 LG계열사가 10개 중 절반 차지, SK그룹사는 4개사가 이름을 올렸으며, 삼성전자는 6위에 랭크됨
- 한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ESG 등급위원회를 개최해 7개사의 ESG 등급을 하향 조정했음
- 환경경영(E) 부문에서는 에쓰오일(S-Oil)이 A등급에서 B+등급으로 한 단계 하락 사회책임경영(S) 부문에서는 포스코홀딩스, 한국전력공사, 한라의 등급이 하향 조정됐으며, 지배구조(G) 부문에서는 지투알, 우리은행, 한국투자증권의 등급이 하락했음

(한국경제, 2022.08.10) 이현주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8.12(금) ~ 2022.8.18(목)

제공일시 2022 08 2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차 인센티브 증가했지만 가뭄, 리튬 가격 상승으로 전기차 생산 제동 걸려

- 조 바이든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각)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함.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법안인 감축법은 지난 7일(현지시각)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상원을 통과했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 박빙의 승부 끝에 찬성 220대, 반대 207표로 14일(현지시각) 하원을 통과함
- 법안 통과 이후 앞으로 빌 게이츠 회장이 설립한 기후 펀드인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BEV, Breakthrough Energy Ventures)를 비롯해 기후 스타트업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가져올 투자 기회에 대해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음. 일렉트릭 하이드로젠은 녹색수소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임. 래피 가라비디언 일렉트릭 하이드로젠 대표는 “이 정책은 중공업의 탈탄소화에 수소가 기여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수소 생산자에게 보상하도록 디자인됐다”고 평가함
- 이번 법안에서 기후와 전기차 관련 항목을 보면 ▲기후변화에 4330억 달러(약 568조원) 투자 ▲자동차 제조사가 20만대 이상 판매하면 세액공제 한도를 철폐 ▲신차 전기차에 인센티브 7500달러(약 985만원) 유지 ▲인센티브는 연방세금 공제 신청시가 아닌 전기차 판매 시점에 지급 ▲중고 전기차는 인센티브 4000달러(약 525만원) ▲무게 14000파운드(6.35톤) 이상의 트럭은 4만 달러(5225만원) 까지 지원함
-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전기차 크레딧임. 신차 전기차에 7500달러(985만원), 미국산 콘텐츠를 장착하면 추가로 500달러(65만원), 노조가 만든 차를 팔면 또 4500달러(591만원)를 추가로 크레딧을 받음. 앞으로도 배터리와 첨단 제조시설에 100억달러(약 13조원), 대출에 200억달러(약 26조원), 자동차 설비 교체에 20억달러(약 26조원)이 할당될 예정임
- 또 다른 큰 변화는 시간당 35달러(4만5000원)의 배터리 생산세 공제임. 예를 들어 100킬로와트급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 제조사에 지불되는 금액은 3500달러(약 459만원)인데, 여기에 소비자 인센티브를 더하면 1만달러(약 1313만원) 또는 1만1000달러(약 1445만원)의 가치가 생겨나, 전기차 가격이 실질적으로 휘발유 자동차와 동등한 가격에 도달하거나 더 싸진다는 분석임
- 인센티브 제도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가뭄 등으로 지금 전 세계 전기차 생산에 제동이 걸림. 실제 리튬을 정제해서 배터리 원료로 만드는 마진은 올 3월 최고 정점에 이르렀다가 지금은 절반 수준으로 폭락함. 리튬 원자재 가격은 상승했으나 원자재를 정제해서 만든 리튬 화학물질의 가격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임. 19일(현지시각) 블룸버그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머스크는 "리튬 원료를 배터리 화학물질로 바꾸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었지만 이제는 수익성이 떨어져서 아예 사업을 접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고 주장함
- 원자재 가격이 제조사가 판매하는 리튬 화학제품 가격보다 더 빨리 오르면서, 정제업체들의 이익은 빠르게 줄어든 것임. 최근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몇 달 동안 배터리와 자동차 업체들의 완제품 공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채굴 원자재 가격은 계속 급등하고 있음
- 테슬라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들은 장기적인 공급망 경색 위험에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음. 포드자동차와 제너럴모터스(GM)를 포함한 자동차 회사들은 최근 몇 달 동안 채굴 및 가공업체와 배터리 금속에 대한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함.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적절한 원자재를 공급받지 못하면 전기차 생산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임.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채굴업체들과 직접 거래도 늘려가고 있음. 원자재 부족이 제조업체의 비즈니스 관행까지 바꿔놓고 있는 셈임

(인팩트는, 2022.08.23) 유미지 기자

(인팩트는, 2022.08.22) 홍명표 기자

(인팩트는, 2022.08.17) 송준호 기자

(인팩트는, 2022.08.04) 홍명표 기자

- 중국과 독일 지역도 가뭄으로 인해 전기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림. 이번 사건으로 기후 변화를 업계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음.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2일, 중국 리튬 생산량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쓰촨성 지역이 폭염으로 수력 발전에 사용되는 저수지가 고갈됐다고 전함. 섭씨 40도 이상의 기온과 부족한 강수량, 급증하는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고 밝힘. 이에 정부 관리들이 리튬, 비료 및 기타 금속 생산 업체들에게 공장을 폐쇄하거나 생산량을 제한할 것을 명령함. 전기를 차단하는 명령을 기존 8월 20일까지에서 25일로 연장됨
- 쓰촨성 지역은 중국에서 약 20%의 리튬과 13%의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전력 생산의 80%를 수력 발전에 의존함. 애널리스트들은 폭염이 지속된다면 쓰촨성에서 전기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는 주변 성, 저장성 및 장쑤성과 같은 동부 지역 역시 전력 위기를 마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함
- 도요타를 비롯해 폭스바겐, 현대자동차 등 주요 자동차 기업을 포함해 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은 쓰촨성에 공장이 있어 전기차를 비롯한 자동차 산업이 직격탄을 맞음. 폭스바겐의 경우 배터리 부품의 90%를 재사용하기 위해 독일에 공장을 세웠지만 최근 독일의 브란덴버그(Brandenburg)와 작센(Saxony)주에서는 산불이 일어 여러 지역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임
- 이같은 지적에 대해 테슬라를 비롯한 여러 자동차 제조업체는 공장에 재생 에너지 발전기를 설치하고 있고, 물 소비를 줄이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BMW 역시 인도 첸나이에 있는 공장을 예로 들며 우기에 빗물을 수집해 공장의 연간 물 수요량의 60~90%를 충당하고 있다고 전함